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중심으로-

임현희

경상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An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Focusing on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Sociability -

Hyeon-Hui L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Received October 13, 2014 :Revised October 19, 2014 :Accepted October 26, 2014)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mproving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bility by conducting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re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ttending B middle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 located in K county.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wo hours once a week (Friday) at B middle school during special education class from May 2, 2014 to July 18, 2014.

Methods. For the tools of studying, Self-esteem and social strip forms/rubrics were filled, by students', before and after and data processing was inspecte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 WIN (Ver.18.0) for quantitative analysis. Also, on the basis of content, analyzed data of the individuals' self-esteem social changes are shown in graph format.

In addition, this qualitative study shows before and after of dynamic house, tree, person (K-H, T, P), dynamic family (KFD), dynamic school life of search phase (4-6 sessions) significant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sociability in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fluenced by conducting a Group Art Therapy Program.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roup Art Therapy Program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showing that self esteem average is 2.04 before Group Art Therapy Intervention but self esteem average is 2.92 after Group Art Therapy Intervention.

*Corresponding Author : sisisi-264@hanmail.net

Second, as a result of social strip pre-post, there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self esteem pre-post result, although, post examination's average level was enhanced after Group Art Therapy Program in difference examination.($p > .05$).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ndicated pre-post change of Students' pre-post dynamic house, tree, person (HTP), dynamic family (KFD), a dynamic school daily life (KSD), students'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concept shows statistical significant changes.

Conclusio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Group Art Therapy Program shows effective improvement in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learning disabilities. However, a future study on larger and more diverse group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re advised to be conduct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Key Words: Adolescents, Group Art Therapy, Improvement of self-esteem, Learning disabilities, Soci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것이며, 집단 장면에서 나타나는 언행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개념, 생활관, 대인 관계 양식 등이 사실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다(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2000).¹⁾

청소년기의 사회적 행동은 학업 성취도 및 학교생활의 적응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반응형태 또한 이들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습장애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학습부진 학생들보다 사회성이 낮거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학습장애아 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2).²⁾ 학습장애 학생들은 학급 내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또래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낮은 자아개념, 정서적 문제(스트레스, 우울), 품행문제, 공격적 행위 등의 개인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또래들보다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호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거부될 가능성도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습장애 학생들은 빈약한 자존감과 사회성 기술을 갖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민감하지도 않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각도 빈약하여 사회적 거부를 겪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결함은 학업성취, 성공적인 삶, 정서적 문제, 위기관리 문제, 적절한 직업 선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Aronson & Metter, 1969).³⁾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기술 결함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또래나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게 되어 학습장애 학생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다. 중요한 것은 한 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이 계속 될 때까지 거의 항상적으로 유지된다(Cooprsmith, 1967)⁴⁾고 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정체감 형성과 건전한 발달을 지향하며 인간관계 또한 만족스럽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종종 곤란을 겪게 된다. 결국 인간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기가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제가 아

낼 수 없다. 한편, 학습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보이는 문제점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대체적으로 절대 다수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구별되는 정도의 대인관계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포래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Sigall, H & Gould, R., 1977).⁵⁾

그러므로 학습장애 학생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예술치료'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미술활동은 언어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기 힘든 학생에게 마음과 영혼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 여러 사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원만하게 하는 매개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본다. 학습장애 학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서를 발달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 미술치료를 활용한 방법 중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간접 경험해 보고 또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발달되는 청소년기에 학교교육에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적은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대상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성 향상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K군에 소재하는 B 중학교 1곳의 특수학급 학습장애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모든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기간 동안 대상 학생에게 일상적인 교육적 지도와 부모의 가정교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 12가지로 구성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K군에 소재하는 B중학교 특수학급에 입학되어 있는 학습장애 3명으로 2014년 5월 2일부터 2014년 7월 18일 까지 12주 동안 주 1회 (금) 2시간씩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집단미술치료는 B중학교 특수교실에서 이루어졌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 도구는 자아존중감 검사지와 사회성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3. 연구설계 및 절차

본 연구 실험설계는 사전, 사후검사 설계로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은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 검사로써 연구대상 학생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실험연구 설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 O ₁ | X | O ₂ |
|--|---|----------------|
| O ₁ : Pretest | | |
| X: Experimental(Group Art therapy program) | | |
| O ₂ : Posttest | | |

본 연구의 절차는 연구대상 학생을 2014년 5월 2일부터 7월 18일 까지 주 1회 (금) 2시간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검사지를 사전 측정은 1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였고, 사후 측정은 12회기를 마친 직후에 실시하였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간 평균점수 , 표준편차비교를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Ver.18.0)을 이용하여 paired t- 검증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개인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검사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으며, 회기별 활동과정과 집단원 개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통한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elf-esteem before - after effect

| Self-esteem | Test situation | N | M | SD |
|----------------------|----------------|---|------|-----|
| General Self-esteem | before | 3 | 2.28 | .42 |
| | after | 3 | 3.22 | .38 |
| Social Self-esteem | before | 3 | 1.89 | .51 |
| | after | 3 | 2.85 | .55 |
| Homely Self-esteem | before | 3 | 1.78 | .22 |
| | after | 3 | 2.70 | .26 |
| Academic Self-esteem | before | 3 | 2.33 | .38 |
| | after | 3 | 3.00 | .75 |
| Self-esteem | before | 3 | 2.04 | .22 |
| | after | 3 | 2.92 | .10 |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개입 전 자아존중감 평균이 2.04였으나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개입 후 자아존중감 평균이 2.9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을 보면, 일반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평균점수가 2.28점으로 낮은 반면 사후의 자아존중감은 3.22($p=.023$)점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평균점수가 사전의 1.89($p=.019$)점으로 낮은 반면, 사후의 2.85점으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평균점수가 사전의 1.78($p=.006$)점으로 낮은 반면, 사후의 2.70점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학업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평균점수가 사전의

Table 3. Self-esteem before - after effect

| | t | p | confidence interval | |
|------------------------|---------|------|---------------------|------------|
| | | | low limit | high limit |
| 1 General Self-esteem | -6.425 | .023 | -1.57687 | -.31201 |
| 2 Social Self-esteem | -7.211 | .019 | -1.53753 | -.38839 |
| 3 Homely Self-esteem | -12.500 | .006 | -1.24464 | -.60721 |
| 4 Academic Self-esteem | -1.600 | .251 | -2.45944 | 1.12611 |
| 5 Self-esteem | -11.126 | .008 | -1.21338 | -.53662 |

2.33점으로 낮은 반면, 사후의 3.00점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평균적인 수준은 모두 향상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5$).

4.2.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미치는 영향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통한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ociability before - after effect

| Sociability | Test situation | N | M | SD |
|---------------------|----------------|---|------|-----|
| Low- abiding spirit | before | 3 | 1.39 | .35 |
| | after | 3 | 1.72 | .10 |
| Sociality | before | 3 | 1.81 | .17 |
| | after | 3 | 1.81 | .13 |
| Cooperativity | before | 3 | 1.50 | .44 |
| | after | 3 | 1.78 | .19 |
| Independence | before | 3 | 1.44 | .38 |
| | after | 3 | 1.89 | .19 |
| Sociability | before | 3 | 1.59 | .16 |
| | after | 3 | 1.80 | .12 |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성 사전-사후 결과 차이검정에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에 비해서 사후검사의 평균적인 수준은 모두 향상하였으나 자아존중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 > .05$).

Table 5. Sociability before - after effect

| | t | p | 95% confidence interval | |
|-----------------------|--------|-------|-------------------------|------------|
| | | | low limit | high limit |
| 1 Low- abiding spirit | -2.000 | .184 | -1.05044 | .38378 |
| 2 Sociality | .000 | 1.000 | -.20701 | .20701 |
| 3 Cooperativity | -.898 | .464 | -1.60868 | 1.05312 |
| 4 Independence | -1.512 | .270 | -1.70931 | .82042 |
| 5 Sociability | -1.872 | .202 | -.69630 | .27408 |

4.3. 동적 집, 나무, 사람 (K-H,T,P), 동적 가족화(KFD), 동적학교생활화 (KSD)의 사전- 사후검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단계(4-6회기)의 동적 집, 나무, 사람 (K-H,T,P), 동적가족화(KFD), 동적학교생활화 (KSD)의 사전- 사후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에서 학생 A의 그림에서 집, 나무, 사람의 그림은 상호작용이 부족하였다. A는 집 그림에서 창문이 5층으로 나열된 것을 통해 집안에서 말할 대상을 찾지 못해 집밖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또한 굴뚝의 표현을 통해 가족의 온기도 원함을 알 수 있다. 나무와 사람그림을 통해 아직 생각의 폭이 넓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학생 B는 사전, 사후 집, 나무, 사람 그림이 거의 유사하다. 지붕에 사선으로 무늬를 많이 그린 것과 나무 그림의 옹이를 통해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무의 가지가 기둥 위에서부터 단절됨을 통해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성향임을 알 수 있다. B에게는 대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훈련이 필요하다.

학생 C 사전 그림에서 버섯 집을 표현하였으나 사후에서는 나무 위의 집에서 사는 사람을 표현하였다. 커다란 나무 위의 마치 새집과 같은 집안에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표현하여 C는 오랜시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애정결핍의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의지하고 싶은 욕망도 드러났다.

동적가족화(KFD) 그림에서 학생 A의 사전 그림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모두 한 방에서 누워 있는 그림을 그려 가족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듯 하였다. 사후 그림에서 역시 혼자 한 방에서 책을 보고 다른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관의 유대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후 그림

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그린 것을 통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었다.

학생 B는 가족구성원이 많아 처음에는 어떻게 다 표현 하냐고 불만을 드러내고 한참 후에 여동생을 먼저 그리고 자신과 막내 동생과 오빠를 그렸다. 사후 그림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오빠, 삼촌, 여동생, 부모님 순으로 그림을 그렸다. 각자 무엇인가를 하지만 모두 누워있는 상태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매사에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음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C는 사전 그림에서 할머니와 오빠가 누워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자신은 그리지 않았다. 사후 그림에서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자신과 마늘을 까고 계신 할머니와 누워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오빠를 차례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였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일하고 계신데 도와드리지 않는 자신과 오빠가 알맴다고 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동적학교생활화(KSD) 변화분석의 기준은 집단내의 상호작용, 협동성, 친구의 수, 지도자의 유무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개인별 변화분석은 다음과 같다.

학생 A는 사전에 비해 사후 그림에서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는 그림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위치는 맨 아래 왼쪽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학교생활 속에서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위치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

학생 B는 사전 그림에서 교실 내의 책상 앞에 담임선생님과 친구 한명을 그렸다. 자신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맨 뒤 책상에 엎드려 있다고 한다. 사후 그림에서는 친구 3명과 엎드려 있는 자신을 앞자리에 그렸다. 여전히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소속감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 C는 학생B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바보'라고 장난을 치며 자신은 교실내에서 여자 친구들과만 있고 남자 친구들은 밖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사후그림에서는 B와 단둘이서 공기놀이 하는 것을 그렸다. 여전히 친구들 앞에서 수줍음이 많고 친한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논의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 후의 검사에서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학업적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전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으므로 통계적 해석으로는 의미가 약한 것 같아서 개인별 설문 검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아존중감에서 자신의 임무나 결심에 대한 확고함이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사전에는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왕따로 취급 받으며,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 학생들이었으나, 사후에는 친구와 좀 더 적극적인 사귀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가족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학업적 자아존중감에서는 A의 학생은 많은 차이가 없었으나 B와 C 두 학생의 경우 자신도 노력하면 친구들과만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설문지 검사의 분석결과를 볼 때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

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Jeon⁶⁾과 Lee⁷⁾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습부진아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습부진아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 후의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개인별 설문 검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성 향상이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

학습장애 학생의 공통점은 오래도록 지속된 학습무기력에 빠져 학업의욕이 낮아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회성 훈련과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장애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 질 수 있다.

Park et al.⁸⁾과 Park⁹⁾는 학생장애학생들의 사회성 훈련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게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의미있는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습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학습장애 학생들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위축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학습장애학생들에게 미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비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찾고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효과를 나타내었다는데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타인과 관계에서의 불편과 정서적인 표현의 어려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학생은 K군에 소재하는 B중학교 학생으로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는 학습장애 학생 3명을 선정하였다.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Jeong¹⁰⁾이 연구 개발한 검사지를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위해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 1회 총 12회기 동안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하위요인별로 알아보면, 학생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조금은 달랐지만,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업적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관계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개인별 점수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개인별 설문지 내용 분석의 결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 후에 사회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장애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친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에서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변화와 성장이 나타났고,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이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습 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집단미술치료가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들이 발견되어 후속 연구 및 현장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3명의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중재, 사후단계 설계를 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넓혀 정서행동장애 및 지적장애 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하거나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제한하였으나 주의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학업성취, 학습태도, 교우관계 맺기, 의사표현의 적극성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셋째, 본 연구는 12주에 걸친 짧은 기간의 실험이었으나 보다 긴 시간과 학생의 감정이입과 다양한 표현 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미술치료기법으로 장기간 심층적으로 활동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Choe OS, Gim GS, Choe SN. Art therapy theory and practice. Dong hwa cultural history.2000:17-20.
2. Gim YG. Learning disabilities of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Dae Gu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2002: 53-57.
3. Aronson, E. & Metter, D. Dishonest behavior as a function of differential levels of induce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9: 121-127.
4.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5. Sigall, H. & Gould, R..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evaluation on effort expendi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12-20.
6. Jeon MY. the effects of improving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bility by conducting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students. Young 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77: 16-23.
7. Lee GS. Art therapy research on learning disabilities student of Gang 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cademic thesis, 2002: 27-33.
8. Park CJ, Sin GY, An Segeun. Therapy educa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Seoul hakjisa, 1998. 54-76.
9. Park SN. the effects of improving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bility by conducting a Group counseling. Ul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cademic thesis, 1999:21-26.
10. Jeon GY, Choi BG. Effect on adaptation of the youth, family cohesionfamily cohesion.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95:83-97.
11. Jeong BM. Personality Inventory method for the bedpan for Middle School. Seoul: Korea Testing Center, 1971:21-35.